

한국 사회의 성공 신화와 이데올로기

—MBC-TV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백선기 · 최경순

1. 서론: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한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고, 사회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척도로서 물질적인 재화와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재화(부)를 획득하고, 지위를 통해 획득한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정립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와 권력 및 그로 인한 명예는 누구에게나 선행의 대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공급적 제한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보다 풍요하고, 쾌적하며, 나은 개인적 삶을 추구하며, 이러한 개인적 성취감과 아울러 주변의 신뢰와 존경도 획득하려 한다. 사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지점이나 순간을 '성공'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성공이란 개인적 차원의 성공과 사회적 차원의 성공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성공이란 다른 구성원들이나 사회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이 추구한 바를 성취했을 때를 일컫는 것이며, 사회적 성공이란 개인적인 성취의 과정 및 성과와 아울러 사회적 평가

를 동시에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성공이란 사회에서 규정하는 개념이며 차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공이 한 개인의 성취에 대한 평가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평가로 바뀔으로써, 성공이 지닌 사회적 개념과 목표 지점은 시간에 따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은 '누가 사회적 성공을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화' '교과서(학교 교재)' '만화' '애니메이션' '위인전' '소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영웅이나 인물 등의 정형을 형성하며, 그들이 지닌 삶의 가치나 지향점들을 닮거나 답습하려 한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모범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은 시간과 사회적 목표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되어, 특정한 시기에는 특정한 정형이 '성공'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다가, 다른 시기가 도래하면 또 다른 정형이 성공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의 정형에 대한 변화는 교과서나 소설 등의 기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도되기도 하지만, 현대와 같이 매스미디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새로운 성공의 정형을 주도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 등의 각종 다양한 장르들, 이른바, 드라마·애니메이션·쇼·다큐멘터리·뉴스 보도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주도된다.

특히, 이들 매스미디어들은 다양한 장르들 속에서 일정한 형태의 성공에 대한 정형과 그와 관련된 신화들을 설정하고, 유포하며, 확산시키게 된다.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성공에 대한 정형과 신화의 생성 및 확산의 속도는 기존의 메커니즘들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다. 이는 매스미디어에서 설정하고 유포하는 성공에 대한 정형 및 신화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공에 대한 정형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신화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유도되고 있으며, 그러한 성공이 지향하는 목표와 지향점들이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성공의 신화들 속에서 함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I. 신화의 개념

신화myth는 글자 그대로 '신God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mythos에서 연유된 것이다. 선사 시기의 문화기에 여러 민족들이 자연이나 사회에서 발생한 사안이나 사건에 경이를 품고, 그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초인간적인 존재나 활동을 '가상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서술하는 데서 발생한 민간 전승의 한 형태이며, 이를 통해 그 집단의 경향·본능·희망 등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현하여 사회에 내재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꿈과 동경을 하나의 총체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¹⁾이다.

신화의 가장 단순하고 전형적인 양태로 신이나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는 그 같은 신이나 신성한 존재가 존중될 수 있는 문화나 사회적 제반 관계 및 기능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듯이, 신화란 그것이 발생하게 된 사회 내의 특징적 요소를 설명하고 해석해내게 된다.²⁾ 예를 들어, 신화는 사회의 특정한 제례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줄 수 있으며 사회 내의 법·금기·권력 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계승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특정한 사회 구조 및 양태

1) Hubner, K., 『신화의 진실』, 이규영 역, 민음사, 1991, p. 486.

2) 백선기, 『언론 보도와 신화적 인식』,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 19.

를 띠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듯 신화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및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있으며, 그러한 제반 관계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란 사회의 문화적 양태를 떠나서는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못하며, 그 문화 속에 내재된 관습·전통·경험·윤리 및 인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화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추적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의 신화들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여러 가지 내용이 덧붙여지거나 가감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특정 사안이나 사건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주체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형태로 가감이 되어 '이야기로 만들어져' 전달되는 것이다. 특히 문자와 접목이 되면서 신화는 점차 일정한 양태를 지니며 어느 정도 고정된 양식으로 전달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신화는 특정 시대의 사회 및 문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³⁾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이며, 미래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II.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프로이트와 융으로 대표되는 심리학자들의 신화에 대한 주된 관심은 신화 속에서 표출된 세계 속의 '무의식'이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가를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신화란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과 초기의 내면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보고, 신화를 분석하게 되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원형적인 인격, 원형적인 인간 본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프로이트와 융은 인간 내부의 무의식적 현상이나 잠재 의식이 인간 태고의 표현 양식이나 예술 양식으로 표현되며, 그것은 또 하나의 신화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신화 형식을 일종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

3) 백선기, 앞의 책, p. 20.

간 내면의 양태를 특정 표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상화는 주로 예술적 표현으로 표출되고 종교적 양식으로 승화하게 되는데, 따라서 초기의 신화들이 주로 예술과 종교와 결부되는 것이다. 이들 초기 원형의 양태들은 그것을 배태한 민족이나 문화의 전반 양식을 모두 포괄하게 되는데, 이러한 포괄은 한 시기를 넘어 전시기에 걸쳐 면면히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식은 오늘에 이르게 되며 신화들에 나타나는 제반 문화적 양태와 그것의 바탕이 되는 각종 의식의 흐름이나 인식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그 신화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민족이나 문화의 근본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캠벨과 모이어스가 표현하듯이, 신화란 그것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심연과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⁴⁾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캠벨은 또한 “신화란 시공의 한계를 초월하여 공동체의 가치관과 의식을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상징 체계”⁵⁾라고 한다. 그리하여 신화는 인류의 문화를 창출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종교·철학·예술·역사·사회적 양식 등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단편적인 사유나 원초적인 행위가 상징적 체계를 세우고, 삶의 세계를 보다 풍부하게 표출하는 신화는 과거로부터 현재, 다시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영원의 불가사의적 표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의 상징적 요소들은 그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지닌 채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III. 신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레비-스트로스는 사회적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신화를 규명함에 있어 사회인류학에 구조주의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는 신화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들의 선사 시대의 모습과 양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 삶의 모습을 떠받치고 있는 심층 구조의 숨겨진 논

4) Campbell, J., & Moyers, B., 『신화의 힘』, 이윤기 역, 고려원, 1992, p. 24.

5) 이상희,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사회화』, 평민사, 1978, p. 69.

리를 깨물음으로써 '인류'의 원초적 양태와 보편적 양태를 동시에 파악해 내고자 하였다.⁶⁾

레비-스트로스에겐 신화란 의식적인 경험과는 상치되는 무의식적 소원의 표현된 이야기이며, 한편으로는 그것이 유통되고 있는 문화에서 가장 주요한 이항 대립적 개념의 심층 구조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인류의 문화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의미 부여의 행위 또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행위 양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의미 부여 행위는 연속적 양상의 존재 현실을 단속적인 약호로 분절하는 범주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들 범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약호로 분절하는 범주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들 범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이항 대립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으로써 여기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모순으로부터 문화적 긴장과 불안이 만들어지고, 신화는 이 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인류의 원천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양식과 문화 양식을 발견해내기 위해 선사 시대의 신화들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거의 신화뿐만 아니라, 문명의 손길이 덜 미친 오지들의 신화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시기적으로는 과거를 꿰뚫고 현재에 이르며, 지역적으로는 인류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인간 보편의 양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 레비-스트로스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다양한 신화의 이야기들은 소쉬르가 말하는 발화체의 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소쉬르 전통의 언어학 연구가 언어체의 기층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발화체를 연구하듯이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연구는 문화의 심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화의 다양한 변형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레비-스트로스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신화들이 제공하는 이야기의 이면에 숨어 있는 메시지의 공통적인 약호를 찾고자 한 것이다.⁷⁾ 그에게 있어 신화라는 것은 이항 대립적 관계에 내재

6) 백선기, 『언론 보도와 신화적 인식』, p. 22.

7) Kearney, R., *Modern Movements in European Philosophy* (임현규 외 역, 『현대 유럽 철학

되어 있는 모순과, 이 모순으로부터 나오는 문화적 불안이 '집단적 꿈'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결국 레비-스트로스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문명의 메커니즘으로 보고 이를 전사회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쉬르의 언어학을 인류학적 신화의 과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IV. 신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

바르트에게 있어 신화란 "현대 물질 문명의 온갖 현상들이 마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와 같이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변형된 개념"⁸⁾이다. 한마디로 신화는 '역사적인 것'에 거짓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기만하는 가짜 자명성인 것이다.⁹⁾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화는 지배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이를 촉진시켜, 역사적 과정을 국가적 이익을 위해 구성함으로써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 즉 신화가 정치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의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대중이 감정과 본능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바르트에게서 신화의 개념은 사회 계급을 바탕으로 정의된다. 그에에서 신화는 특정 시기에 지배 집단으로 자리 잡은 특정 사회 계급, 즉 지배 계층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신화의 의미는 지배 계층을 위해, 그리고 지배 계층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¹⁰⁾ 그리고 이것이 피지배 계층의 이익에 반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지배 가치로 보편화되고 자연화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수용되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러한 신화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언어의 기호 분석으로 설

의 흐름』, 한울, 1992, p. 337 참조).

8) 김인식, 「롤랑 바르트 문학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 박사학위 논문, 1993, p. 49.

9) 김인식, 위의 논문, p. 50.

10) Fiske, J.,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Han-Teut Publishing Co., 1990(강태완 · 김선남 역, 『문화 커뮤니케이션』, 한뜻, 1997, p. 157 참조).

명한다. 그는 “신화 속에는 그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탈구되어 있는 두 개의 기호학적 체계가 있음”¹¹⁾을 이야기하며 2차적 기호 체계로서 신화를 설명한다. 바르트는 소쉬르의 기표-기의를 합쳐져 의미를 내는 방식을 첫 번째 의미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을 ‘외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의미화 과정에서의 기표-기의를 결합은 두 번째 의미화 과정에서 기표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의미화 과정을 ‘내포’라 불렀다. 여기서 첫 번째의 의미 체계는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의 체계이며, 하나의 의미화된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 의미 체계는 신화적 개념으로 그 원래의 의미를 변형시킨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변형을 통하여 원래 의미된 현실은 신화의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의 정치적 작용은 사회 생활의 다양한 유형들을 “불확실한 사회 현실의 지도 내의 관련 문맥에 따라 분류하고 선정하여 배열하는”¹²⁾ 매스미디어의 기능과 유사하다. 실제로 매스미디어가 대중에게 부과하는 영상과 행위 형태는 신화적 구조를 분명히한다.¹³⁾ 매스미디어는 수백만의 익명의 사람들을 핵분열만큼이나 갈라놓고 “대중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조장하고, 이기주의와 사적 이해 관계를 동반하며,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동기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손아귀에 힘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메시지를 위에서 아래로 정해진 방향으로 퍼부어대는 수직적 기능에 입각해서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대중 매체의 기술상의 축적된 힘은 역사적 사실을 사회적·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편집과 같은 방향으로 삽입시킴으로써 전혀 새로운 의식을 조작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매스미디어의 제반 표현 양식 속에 침투하여 현실을 굴절”¹⁴⁾시켜, 현실을 지배적

11) 김인식, 앞의 논문, 1993, pp 49~52.

12) 이상희,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사회화』, p. 232.

13) 이은봉, 『신화와 현실』, 성균관대 출판부, p. 218.

14) 이상희, 앞의 책, p. 236.

이데올로기의 영역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I. 연구 문제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신화와 이데올로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현재적 성공 신화와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여, 우리 사회의 매스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성공 신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재 MBC-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성공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이하 「성공 시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성공 시대」의 서사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 문제 2: 「성공 시대」에서 제기하는 '성공 신화'의 의미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 문제 3: 「성공 시대」의 '성공 신화'가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MBC-TV의 주말 프로그램인 「성공 시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교양 다큐멘터리로서는 보기 드물게 꾸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간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1997년 11월 23일 처음 시작된 이래 현재(1999년 5월 30일)에 이르기까지 1년 6개월, 총 76회가

방영되고 있는데 이는 TV 다큐멘터리로서는 보기 드문 장수 프로그램이며 비교적 높은 시청률과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프로그램의 전회분(75회)의 내용을 이 글의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2) 분석 방법

i) 바르트의 신화 체계 이론

바르트의 신화 체계의 모형은 첫째, 언어 체계의 모형에서 그 틀을 빌려오고 있고, 둘째, 그 언어 체계 모형이 신화 체계로 전환되면서 그 구성 요소들은 새로운 명칭과 기능을 부여받는다.¹⁵⁾ 바르트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결합에 의해 기호가 만들어진다는 소쉬르의 설명에 만족한다면, 그 기호가 어떤 신화 체계나 담화 내에서 부여받는 의미 작용을 설명할 수가 없다. 즉 기표와 기의는 제3의 요소를 담는 또 다른 기호가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바르트의 신화 체계로 가면서 이 제3의 요소는 의미 작용 signification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¹⁶⁾ 기표와 기의는 자기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표의 성격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언어 기호에서 기표의 내용은 신화 체계로 옮겨가면서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언어 기호의 기표에 대응하는 기의(내용)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해석을 산출할 가능성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의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내용을 약화시키고 빈약하게 만들면서 신화 체계의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그 현실적인 내용을 제거하고 새로운 신화 내용을 배태할 수 있게 한다. 말하자면 형식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것이요 틀인 것이다.¹⁷⁾ 이러한 신화 체계는 언어 기호 체계에서 그 모형을 빌려오고, 또 일부 언어 기호 체계의 용어와 개념을 바꾸면서 새로운

15)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p. 386.

16) 서정철, 앞의 책, p. 387.

17) 서정철, 앞의 책, p. 388.

신화적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바르트는 신화라는 개념을 통하여, 사회 내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많은 현상이나 사건들에 대해 '감추어진 어떤 것'을 밝혀내어 드러내고자 하였다.¹⁸⁾

이상과 같은 바르트의 논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지배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의 매스미디어 내용은 원시 사회에서의 신화와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방법을 대중 매체의 전달 내용을 분석하는 데 적용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있어서 허구적 이야기(영화·드라마)와 사실적 이야기(뉴스·다큐멘터리) 사이의 구분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허구와 사실 모두 미디어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심층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¹⁹⁾ 물론 이것은 구조주의의 사회 문화적 현상의 구조 동일성의 원칙에서 나온다. 이러한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발화체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점이다. 텔레비전 상황 재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볼 때, 한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매화의 에피소드들은 그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심층 구조(또는 이항 대립적 개념의 일정한 관계 구조)가 발현된 특정한 발화체로 볼 수 있다.²⁰⁾ 즉 지난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번 주 방영된 내용은 전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이항 대립 구조를 나타내주는 특정한 양상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다시 더 큰 차원으로 확대시켜 적용할 수도 있다. 즉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 등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은 그 장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층 구조의 표현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각각의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 일반이 갖고 있는 언어체의 계열체적 변형일 뿐이다. 이것은 한 언어체가 무한

18) Fiske, J.,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Han-Teut Publishing Co., 1990(강태완·김선남 역, 『문화 커뮤니케이션』, 한뜻, 1997, p. 158 참조).

19) 박정순, 『대중 매체의 기호학』, 나남, 1995, p. 405.

20) 박정순, 앞의 책, p. 405.

한 수의 발화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프로그램의 이항 대립적 개념들의 관계로 구성된 심층 구조가 무한한 수의 개별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어떤 하나의 발화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발화체로부터 문화 보편적인 개념들의 관계 구조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발화체가 한 사회의 문화 보편적 약호를 모두 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²¹⁾ 그렇지만 하나의 발화체는 그것이 만들어진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각각의 발화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항 대립적 개념은 다양한 '계열체적 변형'을 나타내지만 이들의 구조적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²²⁾ 왜냐하면 하나의 발화체는 바로 특정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체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텍스트 분석은 각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문화 특정적 의미들의 이항 대립적 관계 구조를 찾아냄으로써 집단과 집단, 그리고 문화와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가치 기준의 차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분별해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특정 프로그램의 발화체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통해 그것이 반영하는 그 사회의 인식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성공 시대」의 각 회분을 하나의 독립된 1차적 발현체로 파악하며 이것들이 모여 전체의 커다란 형식과 의미로서의 2차 구성체를 형성한다고 파악한다. 연구자는 분석 대상인 「성공 시대」의 전회분을 통합적이고 계열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성공에 대한 2차적 함축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곧 분석 대상이 담지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심층적 의미인 '성공에 대한 신화적 의미,' 즉 자연스럽게 표출된 이데올로기를 밝혀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해 그것이 현대 사회와 맺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파악해낼 것이다.

21) 박정순, 앞의 책, p. 406.

22) 박정순, 앞의 책, p. 406.

ii) 서사 이론

본 연구는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에 내재된 '성공 신화'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사 이론을 토대로 한 텍스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서사 이론은 프로프의 민담 분석에서 유래한다. 그는 모든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정한 유형을 갖고 있으며, 서사 속에서 전개되는 인물들의 행위는 기능의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²³⁾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프로프의 서사 모델을 토대로 채트만은 영화와 소설의 서사에, 코즐로프는 텔레비전의 서사에 적용하여 러시아 민담과 매우 유사한 서사 구조를 발견하고 있다.²⁴⁾

서사물은 인간의 역사화 함께 시대와 장소·문화를 넘어 보편적이다. 서사는 우리의 현실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표현 및 경험 방식이다. 현대 사회에서 텔레비전은 현실을 구성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매우 강력한 서사 기구이다. 이러한 텔레비전의 기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보편화되어 있으며 자연화되어 있다.

코즐로프는 그의 연구에서 보편적 호소력을 가진 일정한 주제와 상황, 그리고 전형화된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텔레비전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서사의 예측 가능성은 서사물의 중요한 특성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서사물의 지속적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감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통합체적인 축에서 계열체적인 축으로, 즉 사건의 흐름으로부터 배경과 인물로 시청자의 관심을 옮겨놓는 것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는 서사 이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이론은 서사 구조를 도식화하는 것을 목적

23) Propp, V., *Morphology of the Folktale*,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0, pp. 19~20; Allen, R. C.,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7(김훈순 역, 『텔레비전과 현대 비평』, 나남, 1992, p. 75).

24) 김명혜·김훈순,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 전략」, 박정순·김훈순 편, 『대중 매체와 성의 상징 질서』, 나남, 1997, p. 212.

으로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에 관한 문제, 즉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분석이 결여되는 것이다.²⁵⁾ 따라서 이 글은 분석 대상인 「성공 시대」에 대한 서사 분석과 이데올로기 분석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이트는 이데올로기 분석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보면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관점에서 구축된 현실 세계의 모습이지 특수성을 지닌 개별성에 대한 보편적인 추상적 진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분석은 텍스트 또는 시청자와 텍스트 관계를 조사하여, 텔레비전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어떻게 특정한 사회적·물질적·계급적 이해 관계를 표현하는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것이다.²⁶⁾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시각은 텍스트라는 실천에서 구체화되는 체계적인 의미들과 모순에 주목한다. 즉 텔레비전의 관습화되고 정형화된 서사 구조들이 시청자들에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 내용들을 자연화시키는 방식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텔레비전 서사물을 분석하는 데 형식적인 서사 분석과 함께 이데올로기 분석을 병행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텔레비전 서사물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으려는 상업적 구조로 인해 수용자들로 하여금 다의적으로 내용물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 분석과 이데올로기 분석을 통하여 다의적인 해독이 가능한 텍스트로부터 지배적인 서사 전략을 밝혀냄으로써 내용물의 이데올로기적 의미 생산을 밝혀낼 수 있다. 둘째로 프로그램의 줄거리 전개와 구조적·기능적 논리가 에피소드 안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자연화하는 데 사용하는 서사 방식을 밝힘으로써, 서사 분석은 프로그램의 줄거리의 통일과 논리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성공'에 대

25) 김명혜·김훈순, 앞의 글, p. 213.

26) 김명혜·김훈순, 앞의 글, p. 213.

27) 김명혜·김훈순, 앞의 글, p. 214 참조.

한 의미를 밝혀내어 텔레비전 내용물이 생산하는 '성공 신화'를 비판적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게 한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1. 「성공 시대」의 등장인물들의 속성에 따른 의미

「성공 시대」에 등장한 인물들의 속성을 보면, 먼저, 성별 분포로는 전체 75회 중 남성이 84%(63회)로 여성 16%(12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단순 분포에서도 드러나듯이 성공담의 주인공으로서 설정된 인물이 주로 남성이며 여성의 빈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으로는 40대와 60대가 각각 32%(24명)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12명(16%)으로 많았으며, 70대는 8%(6명), 80대는 9.3%(7명)를 차지했다. 30대도 2명(2.7%)이 있었다. 성장 환경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사람들의 빈도가 42회로서 56%를 차지한다. 중류층은 21명(28%), 상류층은 12명(16%)을 차지한다. 이것은 주인공의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자수 성가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귀속적인 지위에 대한 세습·강화보다는 자신의 업적성에 근거한 지위의 획득과 신분 상승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으로 볼 때, 대졸 이상의 학력이 65.3%(49명)로 높게 나타났고, 고졸 이상의 학력이 17.3%(13명), 중졸 이하의 학력이 17.3%(13명)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주인공이 어려운 성장 환경을 거쳤음(하류층: 56%)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교육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수의 주인공이 힘든 고학을 통해 학업을 마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특이한 현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직업의 분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재벌 총수는 5%(4명)

인 반면 중소기업인은 29.3%(22명)로 나타났다. 특히 기능/예술인이 많았으며, 전문 경영인을 포함한 전문직(영농인·의료인·법률인·체육인·언론인·기타 전문직 등)이 전체의 24%(18명)나 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상위 직업군인 대기업 총수·관료·교수 등과는 다소 상반된 분포로서 직업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상류층의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 12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졸 이상의 고급 학력을 이수하였다. 중류층의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 21명도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졸 이상의 고급 학력을 이수하였다. 즉 중류 이상의 성장 환경을 가진 33명 중 고졸 3명을 제외한 모두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류층의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 42명 중 19명만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23명 중 10명이 고졸, 13명이 중졸 이하의 하위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 환경과 학력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별 분석이다. 여성의 경우 성장 환경과 교육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총 12명 중 9명이 상류의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12명 중 11명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7명이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 반면, 남성의 경우, 남성 전체 63명 중 상류의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은 단 7명에 지나지 않으며 중류의 성장 환경이 16명, 하류의 성장 환경이 30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하류의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이 남성 전체의 4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중류 이상(상류: 7명, 중류: 16명)의 경우 23명 중 한 사람도 중졸 이하의 하위 학력 소지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층의 직업 분포도 주목할 만한데, 상류의 성장 환경-상위 학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11명인데, 그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관료직 2명, 대기업인 1명, 학자 1명을 제외한 7명 모두 천부적인 자질이 요구되는 기능·예술직이나 고도의 개인적 재능을 요구하는 전문직에 종사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성공 시대」에서의 성공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들이며, 기능직·전문직 및 예술직 종사자들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공을 상징하는 직종들이 기존의 판사·검사·정치가·재벌 기업 회장·교수 등이 아니라 전문직이며 중소 기업 규모의 다소 소규모적이며 구체적인 직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성공 시대」의 이항 대립 구조: 성공과 시련

「성공 시대」의 각 방영분은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서 이야기체 구성을 취하고 있다. 주인공의 성장과 역경을 그리며, 시련에 맞서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이라는 결말에 다다르게 하는 성공의 요인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방영분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시련과 성공'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필자는 프로그램에서 구성해내는 성공과 시련의 요인들을 도출, 분류하였다. 각 회당 3~5개로 나누어져 있는 소주제의 표제어(성공 비결)와 프로그램 내에서 언급되는 용어들을 추출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표-1〉), 성공의 요인은 주인공의 '정열·집념'(23회)이고, 다음으로는 '인내·끈기'이다. 특히 인내의 대상으로는 '빈곤'이라는 운명적 시련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주인공이 대부분 어려운 성장 환경(56%)이라는 시련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해나가는 이야기 구조가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창의·개성'(21회)이 성공의 요인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창의와 개성의 강조는 성공인의 직업 분포와도 연관을 갖는데, 대기업인·관료·학자 등의 전통적 상위 직업군보다는 다양한 재능이나 적성 개발과 관련된 전문 업종들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화된 중소 기업인(29.3%)과 기능·예술직(25.3%)의 비율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는 발상의 전환, 개성의 개발, 새로운 진로의 탐색이라는 요소를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성

〈표-1〉 「성공 시대」의 성공 요인

표제어 빈도수	정열·집념	인내·끈기	창의·개성	근면·성실	가족내조력	도전·진취	완벽주의	낙천·긍정	인화·인정	현실·적정	재능·적성	국제경쟁력	원칙주의	가정교육	양심·정의	신용	경험	검약	학구열	대기·만성	안전·안정	가족외조력	여성성
빈도수	23	22	21	20	18	17	11	10	10	8	8	7	6	5	5	4	4	3	3	3	2	2	2

공의 가능성, 다기한 성공의 방법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족 내 조력자’ (18회)가 성공의 요인으로 빈번히 제시된다. 이것은 「성공 시대」가 그려내는 성공담에 대한 한국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희생을 근거로 한 성공담은 가족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강화,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빈번히 제시되는 성공 요인은 ‘도전·진취’ (17회)이다. 이것은 앞의 창의·개성과 맞물리며 「성공 시대」가 구성하는 성공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커다란 요소로 작동한다. 다음으로는 대인 관계·친분 관계와 같은 주정주의적 요인인 ‘인화’의 성공 요인도 표제어로 10번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빈도로서 ‘낙천·긍정’ (10회)의 표제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현실 인정’ (8회)이라는 요소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성공 요인인데 시련 앞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현실 속에서 그 극복 방안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외국어 실력, 세계와의 경쟁과 같은 국제 경쟁적 요인도 자주 표제어로 등장하고 있다.

Ⅲ. 「성공 시대」의 서사 구조 및 신화

「성공 시대」의 성공 신화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서사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시련의 동일화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주인공에게 닥친 시련과 그 시련을 극복하는 주인공의 초인적 노력이다. 이것은 「성공 시대」가 그려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시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운명적 시련’과 ‘자발적 시련’이 그것이다. ‘운명적 시련’이라 함은 주인공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불리한 여건을 말한다. 즉 장애나 가난한 성장 환경 등의 귀속적 요인이 그것이다. 이러한 ‘운명적 시련’은 주인공의 삶의 진로나 방향을 결정짓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이다. 반면에 ‘자발적 시련’이라 함은 주인공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에 대한 위험 요소로서 일정 정도 예상되고 준비된 시련이다.

이러한 운명적 시련과 자발적 시련간에는 그 시련의 원인과 정도에 있어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생활고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갓은 고생 끝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능인으로 성공한 사람의 시련과 스스로 선택한 외국 유학 생활중의 언어 장벽과 인종 차별이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인이 된 사람의 시련은 그 시련의 원인과 정도에서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들 시련에 대한 서술은 이야기의 기능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중으로 기능한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이야기 내에서 주인공의 시련은 항상 가혹하고, 견디기 힘들며,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두 엄청난 시련을 극복한 초인적 의지와 능력의 소유자’라는 동일한 서사 전략이 사용되는 것이다.

2) ‘빈곤’의 승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련의 유형은 ‘빈곤’으로 명명되는 출생 배경·성장 환경의 시련이다. 그러나 시련의 요소로 제시되는 ‘빈곤’은 「성공 시대」속에서 가장 큰 시련으로 제시됨과 동시에 성공의 원인으로도 승화된다. 즉 ‘빈곤이 있었기에 성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전개 구조를 갖

고 있는 것이다. '빈곤'은 주인공에게 닥친 인생의 고통이었고, 좌절이었다. 그것이 주인공의 삶을 질곡시켰고 고난하게 하였다. 이 '빈곤'이란 시련은 주인공에게는 극복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성공 시대」는 그 빈곤 이야말로 주인공에게 오늘날의 성공을 가져오게 한 밑거름이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더 나아가 '빈곤하지 않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는 '가난은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마땅히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교묘하게 둔갑된다. 이것은 그들이 성공하였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즉 결과에 근거한 이야기의 역순적 재구성이다. 과거의 시련을 현재적 평가를 통해 승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빈곤이라는 현실적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미 빈곤을 극복한 사람들의 회고적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적 시련에 대한 불합리와 고통을 정당화 내지는 승인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3) 빈곤의 개인화와 자연화

「성공 시대」에서는 주인공에게 닥쳐오는 시련으로서의 '빈곤'을 개인화·자연화시키고 있다. 학업을 마칠 수 없을 정도의 '빈곤,' 어린 나이에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 할 정도의 구조적 '빈곤'의 문제를 철저히 주인공의 가정사 내지는 개인적 불행으로 단순히 기술한다. 이것은 주인공이 겪게 되는 다른 종류의 시련들이 비교적 상세한 원인 설명과 부연으로 강조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어린 시절에 뒤떨어버린 운명적 시련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인공의 귀속적 빈곤은 그의 재수 없음으로 단순히 귀착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서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빈농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이런 식으로 주인공에게 닥친 빈곤이라는 시련을 가정사로 단순 기술함으로써 개인화·자연화·운명화시킨다.

이러한 귀속적 지위의 개인화·자연화는 반대의 경우, 즉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인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공 시대」에서는 주인공의 부유한 성장 환경은 완곡하게 묘사되거나, 부모의 애정, 가정의 화목, 행복이라는 가정사의 수준에서 언급되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성공 시대」 속에서 부유한 성장 환경을 가진 주인공들이 모두 고등 교육을 이수하며,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에는 거의 시련을 겪지 않는다는 이야기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이것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인 귀속성과 업적성 중, 귀속적 지위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며 업적성의 강조와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 구성이라는 서사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성공 요인으로서 여성의 여성스러움 강조

여성의 성공담은 가족적으로 묘사된다. 즉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로서의 역할이 부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적 자질이 성공의 요인으로 부각된다.

또한 「성공 시대」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시련은 남성의 시련과는 달리 격하거나 가혹하지 않다. 여성들의 성공담 속에서 주된 시련의 요소로 부각되는 것은 ‘남녀 차별’ ‘사회 생활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 정도이며 언급되는 시련의 빈도 또한 극히 낮다. 특히 남성 주인공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가난과 같은 운명적 시련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단순한 빈도 분포에서도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성공 시대」의 여자 주인공 12명 중 5명이 상류층의 성장 환경을 누렸으며, 5명이 중류층, 단지 2명만이 쇠락한 집안 환경에서 성장했다. 교육 또한 11명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단지 1명만이 고졸 출신이다. 특히 고급 교육을 받은 11명 중 7인이 외국 유학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다.

결국 「성공 시대」가 그려내는 성공한 여성은 유복하였으며 잘 교육받고, 잘 결혼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여성으로 묘사된

다. 다시 말해 ‘여성스러운’ 성공담인 것이다. 이것은 성차별이라는 편견에 맞서야 하는 여성의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라기보다는, 여성의 성공담 자체를 ‘여성스럽게’ 구성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여성은 여성적 품성을 유지하며 여성스러움을 장점으로 사회 활동을 할 것이며,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장애이지만 바로 그 여성적 자질이 성공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서사 구조인 것이다.

5) 가족주의의 강조

예의 모든 성공담이 그러하듯이 주인공이 시련을 겪을 때,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등장은 「성공 시대」에서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 구성이다. 위의 성공 요인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조력자의 대부분은 가족 구성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내의 내조와 어머니의 헌신적인 후원이 강조된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이들의 조력이 철저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조력자의 특징이 ‘기대하지 않은 외부로부터의 구원이나 후원’이라면 「성공 시대」에 조력자로 등장하는 주인공의 가족 구성원(특히 아내와 어머니)은 철저하게 자신을 버림으로써 주인공의 사회적 성공을 후원한다. 이러한 희생은 가족이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무조건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성공 시대」의 이야기 구성 방식은 한국 사회의 공동 운명체로서의 가족관, 남성 중심의 가족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가족 중심의 사고가 성공의 동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으로까지 확장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6) 학력에 대한 이중적 기준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의 궤적은 ‘빈곤—고학—시련 극복—자수 성가’ ‘빈곤—학업 포기—시련 극복—자수 성가’의 구조이다. 또한 성공의 요인으로는 부유한 성장 환경이나 높은 수준의 학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성실·정열·적성·창의 등과 같은 자질들이 강조되고 있다. 즉 개인의 성공에 있어 학력이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구조이며, 더 나아가 학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력, 더 나아가 학적에 대한 차별적 지위 부여가 드러나고 있다. ‘빈곤—고학—시련 극복—자수 성가’ ‘중류—평범—대졸—시련 극복—성공’이라는 서사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의 맥락 곳곳에서는 특정 일류대에 대한 지위 부여가 이루어진다. 서사의 내용인 주인공의 성공 분야나 업적이 그의 학력과 상관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에 국한되어 출신 학교에 대한 언급이 맥락 속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인공의 학력에 대한 반복 및 언급은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라는 학교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공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 ‘서울대’는 이미 주인공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성취된 업적, 보장된 기득권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자명해진다. 기타 대학 출신의 주인공들을 다루는 대부분의 방영물에서는 주인공의 프로필을 소개하며 학적을 간단히 언급하거나 아예 출신 학교를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특정 학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폄하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몇몇의 특정 대학과 심지어 중학교·고등학교를 빈번히 지명하여 언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선택과 배제라는 편견의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학력’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인생의 성공에 학력이 중요하지 않음 내지는 크게 좌우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또 한편으로는 성공에 있어 특정 대학에 대한 ‘우월적 지위 부여를 당연시하는 학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7) 성공 척도의 물질화

앞서의 분석에서 극명히 드러나듯이 시련의 요소로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 시련이다. 전체 75명 중 42명(56%)이 빈곤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으며,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 현장에 뛰어들거나 어렵게 고학을 한다. 이후 갖은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극복하며 각각의 분야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그 분야의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기업인을 제외한 여타의 전문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66.7%에 달한다. 이러한 성공담의 구성은 다양한 성공의 방식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마찬가지로 그러한 다양한 기준에 의해 사회적 성공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가 구성해내는 성공한 사람들의 업적은 거의 모두 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경제적 활동을 주요 분야로 하는 기업인이 아닌 학자나, 예술인, 여타의 전문인의 경우에도 그 성공의 척도로서 경제적 지위 향상은 항상 전제된다. 더 나아가 주인공의 재능과 업적이 경제적 업적에 근거하여 평가받기도 한다.

이렇듯 「성공 시대」가 구성하는 현대 사회의 사회적 성공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성공 시대」의 커다란 이야기 구조는 “운명적으로 귀속된 가난이라는 시련은 개인적 노력과 재능의 발휘를 통해 극복되고 보상되는 것이며, 그러한 성공의 성취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 물질적인 요소는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며, 결합될 수밖에 없다”인 것이다.

8) 도덕적 가치 평가의 부재

「성공 시대」가 구성해내는 성공의 요소 중에서 사회인의 바람직한 품성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정의·양심·소신이나 청렴·투명 등의 도덕적 요소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공 시대」에서는 사회 일반에서 강조

하는 도덕과 윤리의 덕목이 훌륭한 사회적 업적의 성취에 있어서 크게 기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시련의 요소나 고난의 요소로서 빈번히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도덕적 가치의 부재 및 왜곡은 「성공 시대」 속에서 주인공들의 부정적 행위나 해악들을 은폐 내지는 미화하는 경향으로 전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김광석(18회, 1998년 4월 5일) 편에서는 무허가 제약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정치적 보복'으로 그려지며, 송명근(37회, 1998년 8월 16일) 편에서는 수술 도중 의사에게 가해지는 욕설과 폭력이 '완벽주의'로 미화되며, 김형규(48회, 1998년 11월 8일) 편에서는 외국 유명 기업의 상표를 도용해서 야기된 상표권 분쟁을 외국 기업의 '견제나 시비'로 그려낸다. 최근 소속 선수들의 항명 이탈 파동(1999년 10월)을 겪은 코오롱 마라톤 팀의 정봉수 감독(58회, 1999년 1월 17일) 편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훈련법이 '메달을 따는 독특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미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에 대한 도덕적 가치 평가의 부재는 방송 이후에 주인공에게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성공 시대」에서 그려낸 주인공들의 모습과 상이하게 귀결되는 결과를 종종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성공 시대」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외교관'으로 그려진 김운용(6회, 1998년 1월 4일) IOC위원은 현재 올림픽위원회의 '세계적인'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재계의 기린아'로 소개된 나승렬(9회, 1998년 1월 25일) 거평그룹 회장은 방송 직후 회사의 부도로 '재계의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결국 성공을 평가하는 도덕적 기준이 부재된 「성공 시대」의 성공담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결과주의·업적주의·성과주의 등의 논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9) 사회 환원 및 기여의 부재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

환원 및 기여의 부재이다. 서구 자본주의의 성공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덕목 중의 하나는 획득한 부의 사회적 환원이다. 프로테스탄티즘에 그 윤리적 뿌리를 두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는 부의 축적 못지않게 그것의 사회 환원을 당연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획득된 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사회 구성원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실제로 미국의 대자본가였던 앤드류 카네기는 1889년 자신의 에세이집 『부 *Wealth*』에서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더할 수 없는 불명예”라고 말했으며, 전기 작가로 유명한 미국의 론 체르노 역시 최근 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혹독한 방법으로 미국의 산업을 일으킨 거부들은 대부분 가장 계몽적인 자선 사업가들이었다”²⁸⁾라고 분석했다. 최근의 사례로는 빌 게이츠를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부부 이름을 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17억 달러를 기증하였다. 또 다른 예로는 퍼시 로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백만 달러에 감사함 Thanks a million」이라는 칼럼을 미국 전역 800여 신문에 기고하며 17년간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왔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기부하였으니 나의 목적은 달성됐다”²⁹⁾라며 최근 그의 칼럼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성공 시대」가 구성해내는 한국 사회 성공담의 종결 구조는 주인공의 입신 양명 그 자체이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벌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위에 올랐다’라는 식의 종결 구조를 갖는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그 사회로 환원시키는 공익적 기여가 배제된 성공의 이야기. 이것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철저히 개인적 업적, 개인적 보상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편협한 성공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획득된 부와 명예의 사회 환원 결여는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가 그려내는 성공 스토리의 일반적 경향이다.

28) 문화일보, 1999년 10월 5일자, 7면.

29) 조선일보, 1999년 9월 30일자, 25면.

IV. 「성공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의미

「성공 시대」는 이상과 같은 서사 구조와 신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화’ 경향을 통한 귀속성의 강조와 업적성이 강조된다. 「성공 시대」에서의 시련은 개인의 가정사나 개인사로 제시된다. 성공의 과정에 있어서도 주인공 개인의 노력과 재능만을 강조함으로써 개별적인 형태로 성공을 제시한다. 성공은 철저하게 주인공 개인의 성공적 자질과 노력과 집념 등에 의해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귀결은 자연히 실패의 원인도 개개인의 속성의 결함으로 돌려진다. 이러한 식의 서사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불공정의 경쟁 같은 ‘구조적 모순’을 철저히 은폐시키게 된다. 결국, 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귀착되며, 구조의 효율성은 개인의 행위를 통해 담보된다. 이와 같은 귀속성의 은폐와 개별적 업적의 강조는 바로 ‘개인화’ 및 ‘개별화’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적 양상인 것이다.

둘째, ‘근면화’ 경향을 통한 경쟁이 강조된다. 「성공 시대」의 근본 핵심은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은 시련을 겪지 않은 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으며, 성실하게 노력한 자에게는 반드시 획득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공 시대」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 창외와 도전을 성공에 이르는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이를 통해 획득된 성공과 명예를 두드러지게 보여줌으로써 경쟁의 구조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사회 구성원들을 개인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 그것도 물질적 가치라는 자본주의의 근본 가치에 매몰되게 만든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경쟁 구조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한다. 이러한 식의 경쟁의 인정과 근면의 강조는 자본주의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물질화' 경향을 통한 물질적 가치가 숭상된다. 「성공 시대」에서 제시되는 성공의 척도는 대부분 '물질적 척도'로 귀결된다.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성공의 주인공으로 제시되지만 궁극적으로 성공의 잣대는 물질적 가치로 치환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노동 단위로 전환되며,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으로 평가되며, 그것의 빈 자리를 물질적 보상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성공 시대」는 이렇듯이 물질적 가치의 위대함과 견고함을 제시하며, 모든 가치들에서 우선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풍요는 선이요 빈곤은 악이라는 이등식 사고가 성립하며, 결국 인간들을 물질 가치의 추구에 몰두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물질 가치의 찬양과 성과 중심의 평가는 사회의 노동 생산성 제고와 생산체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심 명제인 '물질 가치의 존중'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넷째, '화해화' 경향을 통한 보상이 강조된다. 「성공 시대」의 귀결은 대부분 화해적으로 매듭된다. 시련과 역경을 성공의 동인으로 미화하며, 주인공의 노력에 합당한 인정과 물질적 보상이라는 '행복한 결말(해피엔딩)'로 사회와 화해한다. 보상을 통한 시련과의 화해인 것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 부여하는 보상 구조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불평등성을 용인하게 만든다. 소수와의 화해를 통해 전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 용인과 승인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력하는 자에게 성공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며, 그 성공의 보상은 공평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경쟁을 통한 승리와 패배의 분리, 승리에 대한 보상 및 그러한 보상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라는 자본주의의 차별적 보상 체제를 용인함과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구체화' 경향을 통해 사실성 및 실현성을 강조한다. 「성공 시대」는 성공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적 모습들을 생성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실제의 주인공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시키고, 그들의 성공담을 정형화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성공의 모습을 제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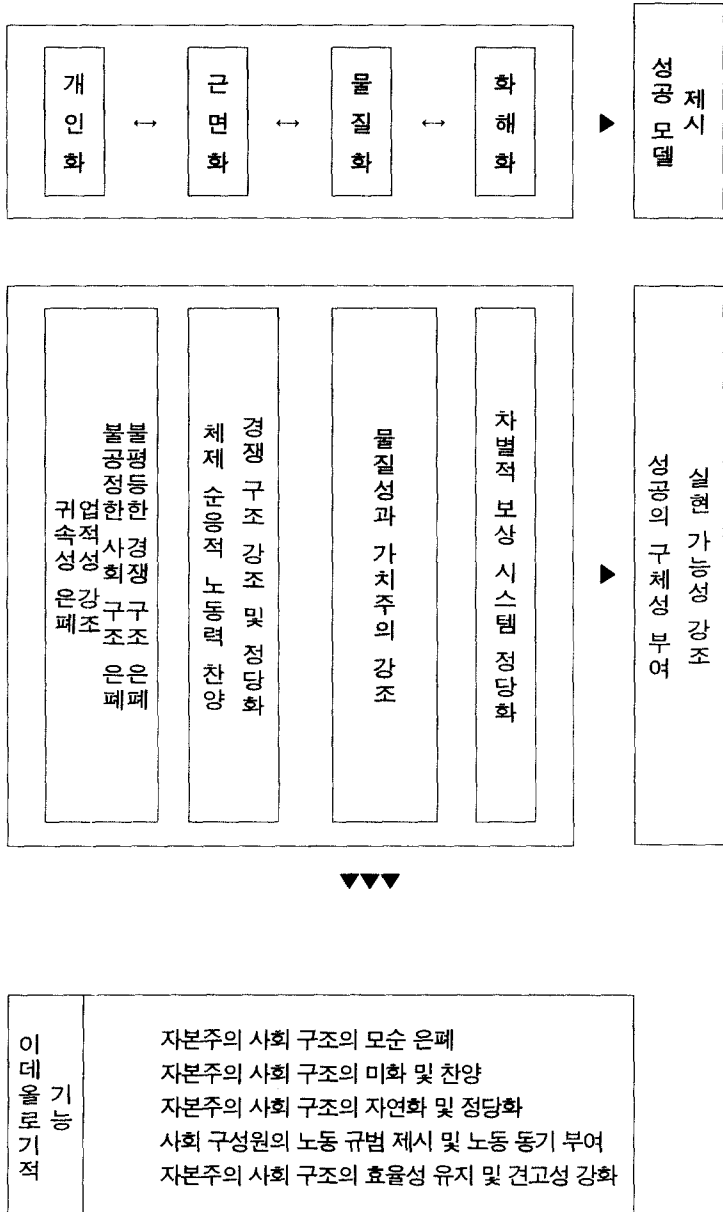
다. 이는 사실성의 강화이며, 실현 가능성의 강화인 것이다. 특히 동시대의 실존 인물의 인생담을 다큐멘터리라는 사실성에 소구하는 장르를 통해 재현해냄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성공이 더 이상 막연하고 주관적이지 않음을 강조한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성공의 목표와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통하여, 사회에 대해 저항하기보다는 사회에 순응하고 좀더 노력하여 성공의 보상을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기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공에 대한 신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유포되고 있으며,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 및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여, MBC-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성공 시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보았다.

그 결과, 「성공 시대」는 여성보다는 주로 남성의 성공에 주목하며, 재벌 기업의 회장이나 정치 권력자들보다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취에 주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서사 방식으로는 '성공과 시련'이라는 이항 대립적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성공 요인으로 '정열·집념' '인내' '창의·개성' '조력자' '도전' '완벽주의' '긍정적 사고' '인화' '현실 인정' 등을 들고 있고, 시련 요인들은 '가난' '재해' '전쟁' '장애' '경영 위기' '학력 차별' '배신'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신화는 '시련의 동일화' '빈곤의 승화' '빈곤의 개인화와 자연화' '여성의 여성적 속성' '가족주의 강조' '학력예의 이중성' '물질적 성공 척도' '도덕적 가치 평가의 부재' '성공의 사회 환원 및 기여의 부재'로

〈표-2〉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의 의미 구성 방식과 이데올로기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구조들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개인적 속성에의 주목' '근면 강조' '물질 가치의 숭상' '차별적 보상 체제의 용인' '구체적 실현 가능성 부각'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 특히 자본주의적 기본 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관계들은 <표-2>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공 시대」라는 프로그램은 현재의 우리 사회의 성공에 대한 개념을 기존의 추상적인 단계에서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단계로 규정하여놓았으며,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성공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나아가 기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불평등 조건에 주목하여 저항하기보다는, 현재의 고통이나 불만이 개인적 노력의 부족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개별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성공에 이르도록 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이나 불합리성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의 기본적 구조나 가치에 순응하게 만들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기본적 근간인 자본주의적 구조와 가치관에 순응하게 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향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명혜 외(1994), 『성, 미디어, 문화』, 나남.
김성도(1998), 『현대 언어학 강의』, 민음사.
김치수 외(1998), 『현대 기호학의 발전』, 서울대 출판부.
레비-스트로스, 이동호 역(1994), 『신화를 찾아서』, 동인.
레비-스트로스, 박옥출 역(1994), 『슬픈 열대』, 삼성출판사.

- 백선기(1995),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 출판부.
- 바르트, 정현 역(1995), 『신화론』, 현대미학사.
- 백선기(1998), 『언론 보도와 신화적 인식』, 커뮤니케이션북스.
- (1999),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 신화적 인식과 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학 연구』 제1집.
- 스토리, 백선기 역(2000), 『문화 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동욱 외(1992), 『신화의 원형』, 고려.
- 알렌, 김훈순 역(1992), 『텔레비전과 현대 비평』, 나남.
- 커런, 몰리 워커던 편, 백선기 역(1999), 『대중 문화와 문화 연구』, 한울아카
데미.
- 핸더슨, 마제오 편, 백선기 역(1994), 『텔레비전과 사회, 그 함축적 의미』, 한
울아카데미.

Myth of Success in Korean Society and its Ideology: A semiological approach on MBC-TV 'Documentary Success Era'

Seon-Gi Baek & Kyoung-Soon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he myth of success is in Korean society, what kinds of mechanism would make such kind of myth of success, and how much closely mass media could related to make it.

In order to attain this purpose, the authors theoretically searched out concepts, meanings and ideological parts of myth. Specially, they focused on myth of success of Korea in the present times as it have tended to acculturate a sort of commercializing society. Also they selected a documentary program on success — 'Documentary Success Era' of MBC TV station — which has been very popular in Korean society to recognize how mass media make a sort of myth about succes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uthors constructed thre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what is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television program?' 'what is the myth about success in the narrative sturcture and

what is the meaning of it?' and 'what is the ideological meanings in the myth about success of Korea?.' In order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authors collected 75 episodes of this television program and analyzed them with semiological research methods, that is, syntagmatic, paradigmatic, narrative and mythical analytical methods.

As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television program was male-oriented one which it mainly focused on male's success, not on female's success. And their jobs are normally technology, professionalism and artistic oriented. In the past, these jobs were not welcomed in Korean society. Secondly,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is program is based on a sort of paradigmatic structure; that is, 'success vs. pain.' The whole of narrative structure of most of episodes tend to start from painful situations and finish as a sort of successful situation. Thirdly, the mythies about success are as follows; 'success is come from overcoming painful situations, especially poor situations' 'success is not a sort of broad one but a kind of small one which any one could get from their personal efforts' 'success is economically rewarded with great respect' etc.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television program would contribute to diffuse bourgeois values throughout the Korean society.

In the conclusion, the 'Documentary Success Era' tends to make and diffuse the myth about success throughout the Korean society. And it contributes to back up the bourgeois values ideologically through the various narrative structure.